

좌담

제1회 아시아建築士會議에 다녀와서



일 시 : 1984년 11월 15일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지태 (본협회 전임회장)
김정철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김지덕 ((주)유신설계공단)
김창서 (협화건축설계사무소)
박규영 (오성건축연구소)
홍정길 (미건사합동)
오문환 (오진건축연구소)
나은택 (세원건축연구소)

사 회 : 김 린 (가전건축연구소)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1회 아시아건축사회의에 다녀온 한국 대표들은, 격동하는 세계의 맥을 타고 아시아지역 건축사들이 활동영역을 세계로 넓히며 권익신장을 꾀하는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이구 동성으로 자문한다. 國際化時代의 어려운 첫 걸음을 내딛는 감회에 앞서 터져나오는 自責과 反省, — 그것은 어쩌면 세계로 향하는 창을 열고 감격과 흥분으로 상호흡하는 미지의 大氣처럼 신선하다.

사 회 :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제 1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여러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나 참가 의의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셨던 김지태 회장님께서 본대회의 참가 배경과 이와 같은 국제 행사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 먼저 배경설명을 하자면 82년도 2월에 구윤회 前회장님과 동남아를 순방한 일
 '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세계에 국위선양을 할 방도는 없을까, 또 아울러 우리도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서 커야 할때인데 우리와 손잡을만한 세계적인 유관기구는 없을까, 이런
 뜻에서 동남아 순방을 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돌아오는 길에 일본 건
 축사연합회를 방문했는데 느낀 것은 아니할 말로 '우리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구
 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네들의 국제적인 활약범위라든지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라든지 격동하는 세계의 맥을 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아카시아(ARCASIA)가 UIA 제 4 지구 회의 참석국가들과 UAP회원국 등
 등을 묶어서 동남아 건축사들의 단결을 시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1st Congress of Arc-
 hitects)에 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아시아 건축사회의)는 <아시아 건축사지
 역 이사회> 즉 ARCASIA(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의 협의체로서
 격년제로 회원국의 윤번주최에 의하여 열립니다.

아카시아는 1967년 환경설계전문지역 중심회의(CAA : Commonwealth Associa-
 tion of Architects)가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동안 그 회의에서 아시아 6개국
 건축사협회 단체를 통합함으로써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통합체가 아카시
 아 창설위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1970년 9월, 창설위원회는 CAA의 아시아지
 역 건축사협회 기관과 협의하여 장래 기관의 공식명칭을 아카시아라고 호칭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에 창설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IAI를 창설위원
 회 참관국으로 가입시켰고 1972년에는 필리핀 건축사협회와 타일랜드 건축사협회
 를 창설위원회 참관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1979년, 아카시아의 창설위원회가 설
 립된지 12년만에, 홍콩에서 열렸던 아카시아 규약제정작업과 아카시아의 건축교
 육위원회(ABAE)에 참여했던 홍콩건축사협회, 인도건축사협회, 말레이시아건축

“그네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실력배양
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겨루고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하
는 반성을...”

사협회, 타일랜드건축사협회, 싱가포르건축사협회, 필리핀건축사협회 등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같은 경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위한 건축사 지역 이사회가 정식으로 창설되었으며 그 머리 글자를 딴 ARCASIA가 새로운 이사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아시아의 10여개국 협회가 이 모임을 승인했고 그해 8월 방콕에서 아카시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카시아 제 2차 회의는 홍콩에서 열렸으며 이 때 중공의 건축사협회와 자유중국의 건축사협회가 참관국협회로 등록했습니다. 제 3차 아카시아 회의는 1982년 1월 콜롬보에서 열렸고, 198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열린 제 4차 아카시아 회의에서는, 필리핀 건축사협회가 아카시아 후원아래 1984년 마닐라에서 제 1회 건축사회의를 주최하도록 제의받아 각 회원국 협회로부터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5차 아카시아 회의장소가 마닐라로 합의됐고 중공건축사협회와 자유중국 건축사협회의 입회가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아카시아의 제 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는 건설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 22명(건축사협회 19명 건축가협회 3명)이라는 인원이 대거 참여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UIA 제 4지구 회원국으로 북한이 가입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력을 과시할겸 실리추구도 할겸 준비를 단단히 했었지만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 참석은, 우리가 앞으로 회원국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하여야할 문제도 있었고 해서 서베이를 겸해 갔었다는 면으로 의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사협회는 물론 가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네들하고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실력배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겨루고 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협회는 내년 11월에 열리는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회원국 단체로 승인이 되도록 상당히 얘기가 깊어 들어가 있어 정식 회원국 자격을 가지게 될 것이 낙관되고 있습니다. 85년 11월에는 아카시아 이사회에 우리 측이 참가해야 될 것입니다.

사 회 :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공 필리핀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건축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이런 국제행사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젠 우리 협회에도 내년부터 국제협력위원회가 발족되고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 되어 있어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동안 로비활동을 제일 많이 해주신 김지덕 소장께서 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덕 : 처음에는 참 따분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갔었습니다만 우리 대표가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고 발언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얼마 안가서 해소 되었지만 처음엔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거기 모인 14개 회원국 대표들은 서로 퍽 친밀하게 지내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기나라 경제개발상의 문제점들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으며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면 건축사라는 입장으로 서로 감싸주고 두둔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무척 따뜻하고 정다운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회의 마지막에 작성된 결의문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꼭 참석하여야 되겠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아시아지역의 각국 건축사협회의 단합문제, 기술증진문제, 또 건축문화 예술에 대한 발전과 건축을 하고자하는 건축가들의 평생교육문제, 건축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증진문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 등등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도출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로 회의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 회 : 이번 회의에서 참석하신 김정철 건축가협회 부회장께서는 UIA 산하에 있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표자격으로 아세아 제 4 지역 회의에도 참석하셨는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건축가들의 조직이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입하려고 할때 국내 건축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제 4 지역회의를 겸하셨으니까 그쪽 분위기도 느끼신데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철 : 이번에 저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는 건축가협회 UIA 4 지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협회 회원으로 아카시아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파악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태 회장님과 김지덕소장께서 말씀해주셨으므로 생략합니다만 사실 저는 아카시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는 어떤 시점에 와있으며 배경이 어떤지 그런정도의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채 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등을 돌리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문제나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만 해결하다보니 그러한 시점에 서지 않을 수 없었던게 아닌가 반성이 되더군요.

국제적으로 건축가들의 기구라고 할 것 같으면 세계적인 기구로 UIA란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마다 그룹이 있어 지역회의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세

“국제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士협회나
家협회를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 나라
건축계를 대표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계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국제적인 큰 테두리가 있고 그안에 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1원화된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 필리핀 등 극소수의 나라들은 그나라의 제도에 의해 서로 다른 건축가의 입장에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단체가 유기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활동을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루며 일하고 있습니다만 필리핀에서는 UAP가 막강한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건축계를 대표하는데 사실은 UIA의 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지금까지 PIA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4지역 회의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5년 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카이로 UIA총회에 대비한 우리의 4지역 회의의 목적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조사항을 토의하는 것이 그 첫째였고 그다음은 ACA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질문이 있었는데 PIA가 회원 단체로서 등록 되었는데 왜 UAP가 이회의를 주관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견 말이 안되지 않느냐, UIA가 UAP를 인정하는거나 하지 않는거나 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UIA로 볼때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것을 극복하면서 일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필리핀의 국내문제다. 우리 노타치 합시다. 하는 식으로 분위기는 흐르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때 국제적인 모임에 우리 士협회와 家협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제행사시 우리를 깎아 내리려하는 북한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의 건축계를 대표한다는 입장으로 상호 협력하여 전력을 가다듬고 단결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필리핀의 PIA와 UAP는 서로 자기단체가 필리핀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협회단위를 부각시키려고 부심하기 보다는 한국의 건축계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국제사회에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사 회 : 필리핀이 영어생활권이기 때문에 행사분위기도 무척 화려했고 우리로서는 미처 예측 못했던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는데 전반적인 회의장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김창서 : 아카시아 회의에는 이렇다할 사전준비없이 갔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인데 가보고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모르다보니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영어생활권에 있는 국가들의 회의진행은 우리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회의를 주최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 회 : 현재 입회된 나라는 아시아권에서는 14개나라 밖에는 안된다면서요? 이번에 총회는 처음했고 그이전에 이사회를 했다지만 어떻게보면 이 회의가 초창기라고 봐가지요?

김지태 : 아카시아 이사국회의는 5 차고 이번 건축사회의는 제 1 회 입니다. 각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각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를 알리게 되었고 또 우리 대표단이 제일 많다보니 눈에 띄어 회원국들이 Korea를 찾는 등 <코리아 붐>을 일으키다시피 했었는데 다음대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 회 : 이번 회의 참여를 계기로 이사국으로서의 가입 까지 논의하고 온 것은 큰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 이사국 추천을 받아야 하지는 않습니까?

김지태 : 입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사국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 회 : 북한도 입회가 되어 있습니까?

김지덕 : 북한은 UIA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태 : 이번에 북한은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중공과 자유중국은 참석했습니다.

사 회 : 회의장 밖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규영 : 건축사협회를 통한 국제적인 행사에는 처음 참가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이 그곳에 갔다가 일본에가서 조립주택에 대해 뭘 좀 보고 올까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일본에 갈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찌나 분위기가 가족같고 따뜻한지 말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土협회가 20년을 맞이하는데 아직도 국제교류에 눈이 어두운것 같습니다. 일본계획도 포기한채 끝까지 참석하여 많은 점을 느끼고 돌아온 것이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 회 :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을 위해 필리핀의 건축계와 그밖에 회의의 목적이 아닌 기타 다른 분위기 같은 것을 말씀해주시죠.

홍정길 : 국제회의에는 이번에 처음참가 했습니다. 우선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느낀 점은 거리에 도로의 중앙선이나 차선이 쳐져있지 않고 차도 멋대로 다니고 사람도 아

“정식 이사국으로 가입된다면 한국에서
의 회의개최는 필연적이므로 국제협력문
제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무대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리고 하고 있었는데도 경적소리 한번 소란하게 안들렸고 제가 가있는 동안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도 못들었습니다.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는데 무질서중의 질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 거리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더운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생활방식이 틀리겠지만 그곳 사람들은 무척 여유가있어 보이는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 회 : 만일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면 회의 진행과 새련된 회의장 분위기 조성 같은 것이 필요할텐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철 : 그곳의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순서나 회의내용 등 국제적인 감각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색한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여성건축가협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만 상당수의 여성건축가들이 활약하고 있어 회의장 분위기 또한 부드러웠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해서 많이 익히고 배워서 우리가 개최해야 할 때에는 건축계의 단위로 서로 협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 회 : 우리대표단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정도 었습니까?

김지태 : 미국화된것처럼 아주 부드러웠고 만찬회에서도 정식회원국이 아닌데에도 단상에 참석을 권했고 만찬회때 아리랑 음악이 나와서 매우 호뭇했습니다.

오문환 : 아리랑 음악도 나왔고 국위선양이 잘 된것 같았습니다.

읍서버로서 그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은택 : 회의장에 참석하고 나오는 도중 필리핀 어느 건축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의 팜플렛을보며 건물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건축사에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 정보교환을 하자는 회원국도 있었습니다.

김정철 : 필리핀이나 기타 그곳 회원국들을 보니까 작품을 하는 사람과, 건축가로서 사고성이 능해 국제행사에만 참석하는 전문인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것 같았습니다.

우리 건축사협회도 그런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가지고있는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서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 회 : 회의참석시 통역도 겸하시고 섭외활동도 제일 활발히 해주신 김지덕소장께서 느끼시는 점, 앞으로의 방향제시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김지덕 : UIA의 4 지역 아카시아회의 성격으로봐서 아카시아단체 만큼은 우리 건축사협회

가 가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회의 목적부터가 우리 건축사들과 호흡이 맞는다는 점과 이분들이 논제로 다루고 있는 것 하나 하나가 전부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점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루고 있는 논제를 보면 새로운 건축세대의 문제점, 아시아건축가의 방향, 건축가의 평생교육문제, 세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용역기술단과의 상관관계에서 야기되는 윤리문제 등등 이분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도 꼭 문제시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박규영 : 거기에 부연한다면 그곳의 건축사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도달해 있는 것이 역력했고 또 매우 의젓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협회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되 총회꾼처럼 능란하게 회의에 대처할 수 있고 영어를 훌륭히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결성하여 전적으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국위선양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엄선해야 되겠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김지태 : 86아시안 게임이나 88올림픽에 대해 그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식 이사국으로 가입이 된다면 한국에서의 개최문제는 필연적이므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박규영회원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영어실력고사라도 치뤄 어느 회원이 영어를 잘한다는 자료라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회 : 그쪽에서의 건축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오문환 :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라면 조금 낮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서의 건축가의 대우라든지 모든 인식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건축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건축사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여는 어떤 것인지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들 스스로가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 회 :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석하시고 느끼신점, 또 앞으로의 방향모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지태회장님께서 정리해주시지요.

김지태 : 국제교류를 통한 국위선양은 여러분야에서 가능합니다만 우리 건축사들도 국제대회에 적극 참석하여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홍보용 책자도 교환함으로써 우리 건축사가 대외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에 국제담당부서가 설치되고 또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